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인플레 지속… 2월 '연준 선호 인플레 지표' 높다
- WSJ: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돼
- Bloomberg: 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년 만에 최저
- CNBC: 3월 연준 의사록 "전쟁 여파 불구 올해 금리 인하 가능"

[중동 위기]
- Bloomberg: 이스라엘, 레바논에 대한 추가 공격 전에 이란에 경고
- Bloomberg: 호르무즈 해협, 아직도 통행 매우 제한적
- JP모건 보고서: 중동 사태, 세계 에너지와 정치에 파장

[오일]
- CNBC: 오일 다시 1백 불에 도달…이란, "미국 정전 합의 위반"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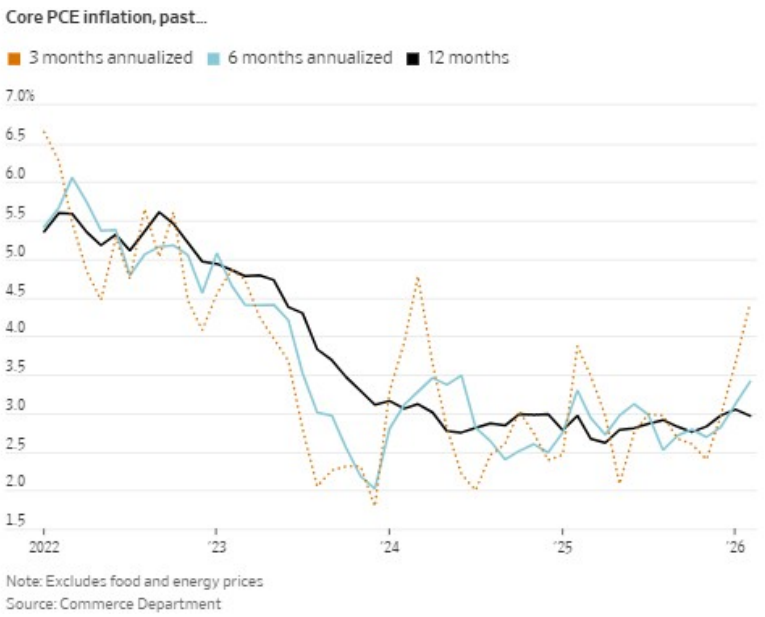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메리칸 항공도 수하물 요금 인상에 합류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 Stayed High in February
미 인플레 지속… 2월 '연준 선호 인플레 지표' 높다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2월에 0.4% 상승했다. 1월의 상승폭 0.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도 0.4% 상승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했다. 작년과 비교하는 전체 12개월 PCE 지수는 2.8%로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1년 치 근원 PCE 지수는 3.1%에서 3%로 약간 감소했다.
- 한마디로 지난 5년간의 인플레 수치는 연준의 2% 물가 목표제를 계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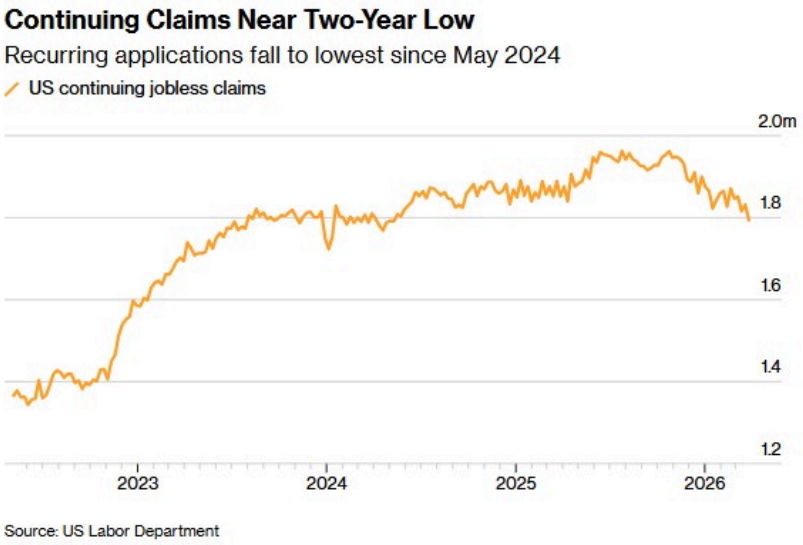
WSJ: GDP Growth Revised Lower for Fourth Quarter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돼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3개월간 미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측보다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 상무부는 4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 기준으로 0.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추정치 0.7%와 최초 발표치 1.4%에서 모두 낮아진 수치다. 전체적으로 세 차례 발표한 수치다. 3분기 성장률은 4.4%를 기록했었다.
- 상무부는 GDP 성장률이 두 번째 발표 때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은 투자 부문이 예상보다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특히 민간 재고투자와 도매업 부진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상무부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첫 공식 추정치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

Bloomberg: US Recurring Jobless Claims Fall to Almost Two-Year Low
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년 만에 최저

- 지속적인 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노동시장에 안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연방 노동부에 오늘 목요일 날짜에 따르면, 3월 28일로 끝난 주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백79만 건으로 2024년 5월 이후 최저치이며, 블룸버그 뉴스 조사의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
- 같은 기간 신규 청구 건수는 21만 9,000건으로 안정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 이번 수치는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가 역사적 낮은 수치 근처에 머무는 이른바 “채용도 낮고 고용도 낮은” 환경을 보여준다. 정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도 3월 전반적인 산업에서도 채용이 반등하고 실업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CNBC: Fed officials still foresee rate cut this year, despite war impacts, minutes show
3월 연준 의사록 "전쟁 여파 불구 올해 금리 인하 가능"

- 연준은 3월 회의에서 이란 전쟁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고 어제 수요일 공개된 의사록에서 밝혔다.
- 대다수 관리는 유가 상승이 고용과 소비를 압박할 경우 통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으며,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도는 가운데 고용이 정체된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적절해질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노동시장 약화와 고유가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올해 금리 인하는 1차례로 전망이 유지됐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3.75%로 11대 1로 3월에 동결했었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Israel Issues Fresh Warning Ahead of More Strikes on Lebanon
이스라엘, 레바논에 대한 추가 공격 전에 이란에 경고

-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 수요일 이후 아랍 걸프 국가들에서 발생한 공습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협상의 잠재적 걸림돌로 지목되며,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계속될 경우 협상은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는 확실한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미군이 이란 주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이란은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Bloomberg: Hormuz Traffic Still Blocked as Iran Tries to Formalize Control
호르무즈 해협, 아직도 통행 매우 제한적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은 여전히 막힌 상태로, 어제 수요일에는 단 7척만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란 정부 항만기구는 기존 항로에 선박 공격용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안전 항로를 제시했다.
- 한편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담당 고위 관리는 미·이란 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지 않다"며, 통행이 제한적이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JP 모건 보고서: Geopolitical Perspectives: Iran's strategy
중동 사태, 세계 에너지와 정치에 파장

이란 전쟁 휴전 발표 바로 전의 자료이지만, 참고 바랍니다.(원본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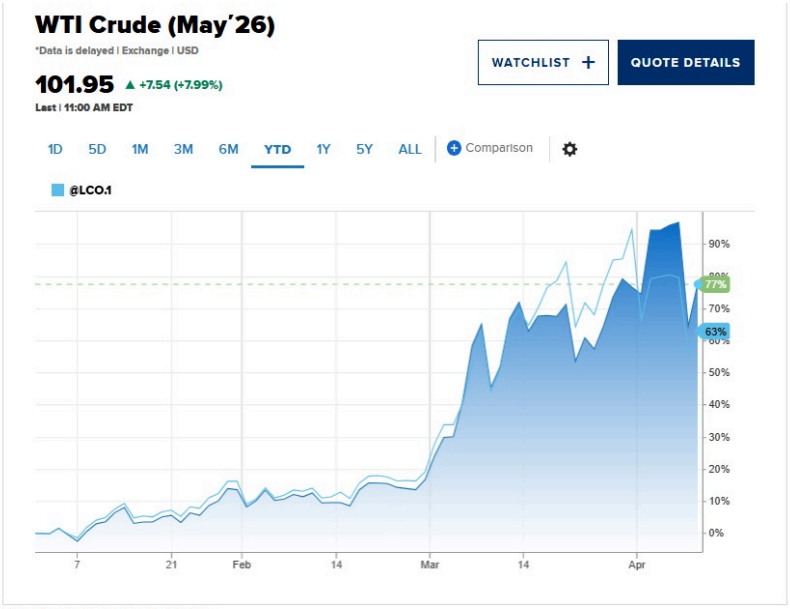
- (국가들 각자도생)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미국 간 군사 충돌이 국제 사회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연합이 공동 목표와 명확한 합의 없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적인 지원과 외교적 조치만 검토할 뿐, 통합적인 대응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 (이란 대체 세력 없어) 이란은 군사적으로 열세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오래 견디면서 경제적·지역적 비용을 높이는 장기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혁명수비대(IRGC)의 권력은 강화됐으며, 내부에서 정권을 바꿀 만한 대체 세력은 없다.
- (호르무즈 재개 2~4개월 걸려) 이란은 상호 합의 휴전만 선호해 왔는데 제재 완화나 주권 보장, 핵 문제 등 경제적·정치적 조건이 포함된 합의만 원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란은 이 통로를 통제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 공격이나 위협만으로도 해협 폐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완전히 재개되려면 최소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 (오일 80불로 향후 지속 가능) 현재 에너지 충격은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협 폐쇄로 아시아 일부 국가는 실제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후 $80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급등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 (미 소비자 물가 부담) 걸프 지역 국가들은 시설 피해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2026년 상반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카타르는 -9%, 쿠웨이트는 -7.1%로 예상된다.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정유·수송 차질로 직접적인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은 직접적인 공급 부족은 적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장기 대응 없어) 장기적으로 충돌이 이어질 경우,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초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 '억제' 외에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rise to nearly $100 after Iran accuses U.S. of breaching ceasefire deal
오일 다시 1백 불에 도달…이란, “미국 정전 합의 위반” 비난

- 유가는 오늘 목요일 상승세를 보였다. 미·이란 간 2주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
- 서부텍사스 중질류5월물은 오늘 목요일 오전 기준 6% 이상 상승한 배럴당 100.2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벤치마크인인 브렌트유 6월물도 약 4% 올라 98.26달러를 나타냈다. 전날 미 원유 가격이 2020년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이다.
- 한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의 CEO Sultan Al Jaber는 휴전에도 해협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으며, 이란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박들이 통과를 위해 이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 휴전 합의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란 의회 의장 Mohammad Bagher Ghalibaf는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Oil prices since the start of the year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erican Airlines Becomes Latest US Carrier to Raise Bag Fees
아메리칸 항공도 수하물 요금 인상에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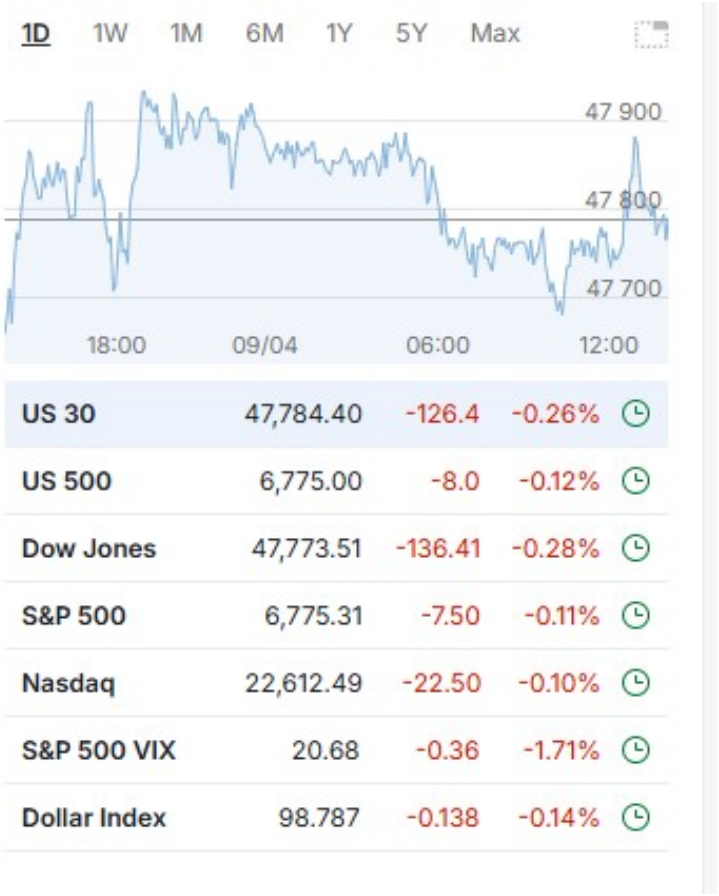
- 아메리칸 항공이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급등한 항공 오일 비용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요금을 올린 미국 항공사 조치에 합류한 것이다.
- 텍사스 Fort Worth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는 1번째 수하물에 50달러, 2번째 60달러, 3번째 200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요금은 목요일 이후 예

약한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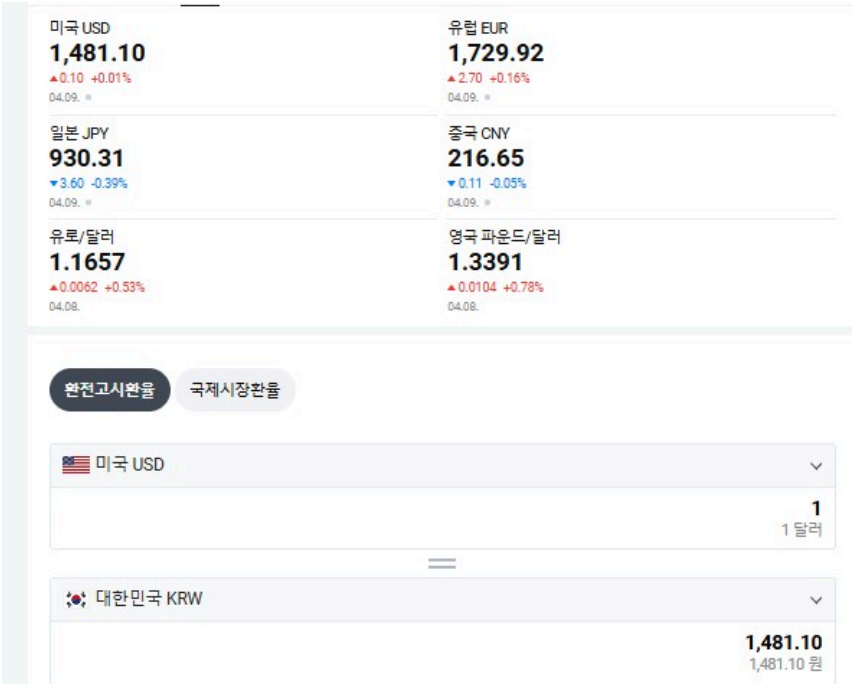
- 단, 국내외 프리미엄 클래스 승객과 AAdvantage 회원은 여전히 무료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7,784.40	-126.4	-0.26%
US 500	6,775.00	-8.0	-0.12%
Dow Jones	47,773.51	-136.41	-0.28%
S&P 500	6,775.31	-7.50	-0.11%
Nasdaq	22,612.49	-22.50	-0.10%
S&P 500 VIX	20.68	-0.36	-1.71%
Dollar Index	98.787	-0.138	-0.14%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